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제16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 이월 처리금만 2000억원 넘어

“국비 있어야 사업을 하죠”

2013년부터 3년간 예산 미교부
재원 없는 사업이 83건... 전국 최다

최근 3년 동안 전북도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이월 처리한 금액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국가 예산이 제 때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미교부로 인해 해를 넘긴 '재원 없는 이월' 사업이 모두 602건에 금액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은 '재원 없는 이월' 사업이 모두 8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월 금액은 2,433억 7,000여만원으로 인천과 전남, 경남에 이어 네 번째다.

'재원 없는 이월'이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해당 회계연도(매년 12월말)까지 국비 예산이 송금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다.

이월되는 자금이 없어 회계상 세출예산만 이월 처리 된다해서 '재원 없는 이월'이라고 한다.

이 같은 재원 없는 이월액은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재원 없는 이월액은 2013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 2,6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해

당 사업 건수 또한, 2013년 94건에서 2015년에는 40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세수팽창에 따른 국비 미교부가 주된 이유로, 국비가 송금되지 않음에 따른 이월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된다.

예산 지연으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가 아닌 자체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국비 미교부의 피해는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광역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전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지자체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와도 국비 미교부의 타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자금의 신속 배정만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일방적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더욱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세원 배분 처리 기준과 자금배정원칙을 마련해 지자체에 사전에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군산=문정곤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

9일 전주향교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최은희 도의원, 전주대 최원철 부총장, 주요기관, 단체장 및 도민들이 참석해 '2016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들이 모여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금 6·은 9·동 11개 획득

자전거 권진욱·체조 장권수 송역도 임강훈, 도내 최초 다관왕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7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13일까지 충남 지역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2만4,811명의 선수단이 참석해 45개의 정식종목과 2개의 시범종

목으로 열린 경쟁을 펼친다. 전북은 대회 3일차인 9일 오전까지 금메달 6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며 순항하고 있다. 자전거 권진욱의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체조 남자고등부 장권수, 유도 남자고등부 전제현, 태권도 여자고등부 노가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역도 남자고등부의 전북 체고 소속 임강훈 선수는 용상 56kg급과 합계 56kg급을 둘다 싸슬이 하며 전북 최초의 다관왕에 올랐다.

전통적으로 전북도가 강세를 보인 유도(금1, 은1, 동3)와 역도(금2, 동3), 자전거(금1, 은1, 동1), 체조(금1, 은1, 동1)는 이번 대회 역시 많은 메달을 배출하며 효자종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년 대회보다 좋지 못한 대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메달획득이 예상된 종목들에서 좋은 결과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목표포로 삼던 종합 9위 달성이 가능한 전망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 암 예방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전북지역암센터에서는 미래에 발생가능한 한 암으로부터 소아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22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7만5천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암발생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암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10월 첫째 주를 키즈리본(Kids ribbon) 캠페인 주간으로 선정했다.

전북지역암센터에서도 지난 5일 삼례중앙초등학교에서 '키즈리본 암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암예방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이날 행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6학년까지 180여명이 참여해 암예방수칙 동영상 등을 통한 암예방 생활습관 인식개선 교육과 조별 암관련 O X 퀴즈게임을 통해 암관련 지식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재 기자

도내 유치원·초중고생 1인당 교육비 '상위'

957만원으로 전국 5번째... 경기도는 645만원으로 전국 최저 지역별로 '천차만별'... 김병욱 의원 "공평히 이뤄져야"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역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출결산

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가 2,049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어 전남 1,187만원, 강원 1,115만원, 경북 986만원이었으며 전북은 957만원으로 전국 5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 931만원, 충북 869만원, 제주 847만원, 경남 808만원, 부산 802만원, 울산 755만원, 대구 718만원, 인천 701만원, 대전과 광주 686만원, 서울 651만원, 경기도 6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경기지역의 학생은 1인당 교육비 지원이 전국 최저로 평균보다 123만원이나 적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아 교육 여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예산 지원과 인력·공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매일 INDEX

3면 "새만금, 정부 주도 추진"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용지조성과 SOC 구축이 지지부진하다"며 "명품 새만금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6면 원광대병원 최두영 원장의 포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1기 졸업생으로서 원광대학교병원 병원장 1호를 기록한 최두영 병원장. 그가 취임 후 병원이 보여준 성과는 눈부실 정도이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열린의정! 으뜸의회!
임실군의의회



전라북도 임실군의의회
Jeollabuk-do Imsil-gun Council